또다시 6월이…….

이한열 열사의 장례 행렬을 향해 쏜 최루탄 연기 속에 가려진 서울태평로 모습 (1987년)

– 사진 경향신문

선택과 결단의 죽음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난달 23일 김재규 장군 기일 하루 전, 이해학 목사님, 효림 스님 등 50여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 삼성공원묘지에서 제29주기 추모제를 올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침략자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주살(誅殺)한 지 꼭 70년이 되는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핵 박정희를 제거한 역사적 의미와 목숨을 걸고 결행한 '민주혁명' 그 미완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들이여, 민주주의를 만끽 하십시오" 라는 그의 유언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추모제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밖의 죽음, 투신(投身)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묵묵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절제된 언어의 아름다운 시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장례기간 내내 기도하면서 그 유언의 깊은 뜻을 묵상했습니다.

한평생 거침없는 언행으로 살아왔던 그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말을 아끼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 대단한 용기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는 자기초월의 경지에서 '침묵'에 버금가는 시적 언어로 자신의 삶을 종합하고 철학적 사색으로 압축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벗들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은인들과 고통받은 벗들을 생각하며 심신(心身)의 한계를 겸허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사를 초월한 새로운 경지를 꿈꾸며 내적 자유와 신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모욕과 배신, 실망과 좌절, 고통과 절망을 넘어선 의지적 결단, 그리고 현실과 내세, 인생과 종교를 압축한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에서, 아니, 그 스스로 하늘의 명령을 오히려 앞당기며 삶과 죽음을 넘어 초탈의 경지에서 결단 했습니다.

선택이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 사랑(1코린13,6)과도 상통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결단의 선택, 그것이 바로 운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운명은 운명자체를 넘어선 초월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한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 그 운명을 우리는 겸허하게 묵상합니다.

운명은 결코 포기가 아닌 새 하늘, 새 땅을 위한 목숨을 건 새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운명은 '뜻밖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명의 뿌리는 자연과 하늘이며 죽음이란 대자연과 하늘에로 회귀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을 만큼 생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 것을 당부합니다. 물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이 이 모든 것을 보완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인간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때 인간은 이 비참함을 용기 있게 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생이며 부활입니다. 부활은 고통의 수락, 십자가의 수렴입니다.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운명이 아닌, 비참한 현실을 껴안고 간 결단의 사람, 섭리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6월항쟁의 정신과 함께 그를 가슴에 품고 기억합니다. 그가 바로 6월항쟁의 한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도록 다시 다짐하며 6월 민주항쟁 정신의 실천적 교훈을 되새깁니다.

희망세상

2009.6 81호
www.kdemocracy.or.kr

표지 – 캘리그라피스트 박병철

06

02 책머리에
선택과 결단의 죽음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전통과 현대, 낭만과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서울시립미술관(구 경성재판소, 대법원) | 이창언

20

14 기획연재 _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주의,
화해와 통합을 향한 여정 | 황규득

20 특별기고
6 · 3항쟁의 역사적 의미 | 박진희

26

26 사업회 소식
2009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 황석선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6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이호룡, 이종률, 황정옥, 현종철
편집취재 송동현,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32 사료이야기
면목이 없다 | 어수갑

36 사업회 소식
민주시민교육 정보지 〈시민교육〉
그 첫발을 내딛다 | 이선태

유럽시민발안회의 참관기 | 박문진

기억과 보존을 위한 발걸음
2008 민중가요 노래모음
〈노래는 멀리멀리〉 발간 | 서정민갑

32

36

50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빛고을 사람 맛에
영흥식당 음식 맛은 뒷전 | 김학민

50

54 게시판

56 독자마당